

# 전남도, 미래관광 먹거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시동

### 10년 간 1조 3000억 원 투입

###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로 조성

전남이 남해안권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를 세계적 관광 명소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향후 10년 간 1조 3000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를

비롯한 남부권 5개 시·도가 3조 원 규모의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위해 남부권을 세계적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으로 대도약하는 초대형 관광개발프로젝트 사업으로, 올해는 33개 사업(개발사업 25개·관광진흥사업 8개)이 본격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화를 위한 뷰티·스파 체험시설(여수), 갯벌 치유 센터(순천),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구례), 땅끝 수상 복합공연장(해남), 빛가람 호수공연장(나주) 등

25개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우선 추진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공동프로젝트로 남도고택 달밤 스테이 상품화 사업(담양·강진·나주·함평), 남도한상상품화사업(신안·영광·나주·목포·장성),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구례·곡성·광양) 등 8개 사업도 구체화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전남 곳곳을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관광 전남의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일보 정병호 기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 '끝나지 않은 전쟁...'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한국기자협회는 '제400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광주일보 정병호 기자 등이 참여한 한국지방신문협회 특별취재단의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 등 8편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 기사는 전국의 지역 대표 언론사 9개 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1월 1일부터 350일 간 24차례 각 지역에 담겨 있는 한국전쟁의 흔적을 돌아보고 이를 치유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의 여정을 담았다.



정병호 기자

정 기자는 한국전쟁 부각되지 않은 호남의 전투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후대에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화두를 던지는 보도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강기정광주시장, 김영록전남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기정 광주시장,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이번 회기(제412회 임시회)에 달빛 철도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으며,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회기에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강 시장은 이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당론으로 채택한 달빛 철도 특별법 통과에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는 대구시 등과 함께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로 예상되는 이번 회기 중 다음달 1일 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강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3일과 10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총선 정국에 몰입하기 전 달빛 철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구정장협의회,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시민단체협의회, 민주당 광주시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 민간 단체들도 성명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김영록 전남지사, 국립 의과대학 신설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료 취약지역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

행정기관 기능정비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의료 취약지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광역비자제도 도입, 지방 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중요한 안건이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처 반대나 지연으로 사장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의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 및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방안건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아이 1명당 0~7세 '현금지원' 2960만원

### 첫 아이 출산 시 첫째 1520만원...다음해부터 '부모급여' 지급

여아가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늘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

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으로 집계된다.

/연합뉴스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흥륜동엔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개발부지 매매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 면 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소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12월 4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신문공고게재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23일  
주식회사 에델  
목포시 삼전산단로37(연산동)  
청산인 최종근

### 조직변경 공고

당 회사는 2024년 1월 17일 사원 총회에서 주식회사 엔케이소방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3일  
유한회사엔케이소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동로 29-9(장동)  
대표이사 이봉기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